

“이번 설만 같아라” 유통가 선물 매출 늘었다

광주신세계 본 판매 기간 10% 상승...점포 전체 매출은 3% 감소
롯데백화점 광주점 선물 매출 5.7%...식품 255%·생활용품 33% ↑
광주 이마트 20만원 이상 매출 67% 증가...배송 건수 15% 늘어

고향에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명절' 영향으로 광주지역 백화점 설 선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광주 대형마트 설 선물 배송 건수는 전년보다 15% 뛰었다.
15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부터 설 연휴 이전인 2월10일까지 17일 동안 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1월7~23일)보다 (주)광주신세계는 10%,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7% 증가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점포 전체 매

출은 1년 전보다 3% 감소했지만 선물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을 뜻하는 객단가는 지난해 설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명절 선물세트 가운데 축산물(14%), 수산물(25%) 등은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이뤘다.
명절 대표 선물로 떠오른 와인(62%)과 건강식품(15%)도 매출이 올랐고,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 성향에 따라 명품(13%)과 골프(11%)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설 선물 수요가 늘면서 주요 품목인 축산물(8.1%), 과일(7.4%), 굴비(5.5%), 주류(42.2%), 건강식품(3.0%) 매출이 올랐다.
특히 광주점은 지난 달 식품관(푸드에비뉴)이 새단장해 문을 열면서 식품과 생활용품 매출이 각각 255.4%, 33.2%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점 전체 매출은 19.8% 증가했다.
하지만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힘든 화장품과 여성·남성·아동·스포츠 등 의류 전반은 10~20% 안팎 '마이너스' 감소율을 기록했다.
광주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 배송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50일 동안 광주 4개 이마트 배송 건수는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명절 선물을 직접 전하지 않고 배송을 이용

하는 고객이 늘면서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프리미엄 한우·과일 수요는 늘어났다.
광주 이마트 설 선물 가운데 20만원 이상 매출은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금액대별로 보면 ▲5만~10만원 미만 135% ▲20만원 이상 67% ▲5만원 미만 62% ▲10만~20만원 미만 11% 순으로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한 백화점 관계자는 "3차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일어나면서 전체 매출보다는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군 성적이 좋았다"며 "역설로 소비심리가 분출하면서 해외 명품과 가전·가구 매출이 신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존 백화점 매출을 견인해 왔던 여성·남성패션, 아동·스포츠군의 매출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7.00 (+46.42)
↑ 코스닥	981.97 (+17.66)
↑ 금리(국고채 3년)	0.998 (+0.003)
↓ 환율(USD)	1101.40 (-5.60)

순천 '해금 골드키위' 홍콩 입맛 사로잡는다

농협 전남본부, 올해 첫 수출 선적식
순천 '해금 골드키위'가 올해 처음 홍콩 시장에 오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순천시 승주읍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해금 골드키위 홍콩 첫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적된 해금 골드키위는 순천연합조공사업법인에서 선별한 총 6t 규모(4000만원 상당) 상품이다. 순천 키위는 홍콩 유명 마트 브랜드인 '파크앤샵'에서 선보여진다.
지난해에는 총 2억5000만원 상당(69t) 순천 골드·그린키위가 일본·홍콩에 수출했다.
순천시와 농업인·순천연합조공사업법인 등은 농산물 해외 수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날 선적식에는 김원일 농협 전남본부 경제본부장, 김수현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재 순천농협 조합장, 김도순 순천연합조공사업법인 대표이사, 조기은 해금골드키위 공선출하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임 금지·비대면에도 여수공항 설 이용객 증가 1만5836명...전년비 60% ↑ 광주공항, 1.8% 소폭 상승

코로나19 여파에도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설 연휴 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광주·전남 공항 승객이 늘었다.
15일 한국항공협회 항공통계에 따르면 이달 10~14일 닷새 동안 광주공항 승객은 총 3만2366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1월23~27일) 3만1787명보다 1.8%(579명) 증가했다.
이는 광주-김포 노선이 지난해보다 2개 많은 3개 노선이 운항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김포 노선은 총 26편에서 89편으로 3.4배(63편) 늘었다.
여수공항도 같은 기간 여수-김포 노선이 2.3배 증가한 92편 운항되면서 전체 승객이 60.6% 증가했다. 설 연휴 여수공항 승객은 지난해 9863명에서 1만5836명으로 60.6%(5973명) 증가했다.
특히 김포에서 여수로 온 승객은 지난해(2477명)의 2.3배 수준인 5690명을 기록했다.
설 연휴 동안 두 공항 모두 제주 노선 승객은 감소했다.
광주-제주 노선 승객은 27.1%(~7563명) 감소한 2만361명으로 집계됐다. 여수-제주 노선은 전년보다 12.0%(~566명) 감소한 4148명이 이용했다. 무안공항은 국내·국제선 모두 운항되지 않았다.
한편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지난 한 해 승객이 전년보다 늘어난 곳은 여수공항과 양양공항 뿐이었다. 지난해 여수공항의 여객은 총 32만8157명으로, 전년 32만2643명보다 1.7%(5514명) 증가했다. 광주공항 지난해 여객은 86만5642명으로, 전년(102만명)보다 14.9%(~15만명)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대 60% 할인...봄 옷 사러가요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고트' 매장에서 올해 봄 유행할 것으로 알려진 꽃무늬와 트윈드 직물 소재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곳을 포함한 여성 의류 브랜드는 9층 행사장에서 오는 18일까지 일부 상품을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대학등록금 납부하고 장학금 받으세요”

3월31일까지 이벤트 진행
장학금·스타벅스 모바일권 등
광주은행 영업점·인터넷·자동화기기를 통해 올해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 402명을 추첨해 경품을 준다.
15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3월31일까지 2021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행사를 진

행한다고 밝혔다.
추첨 대상은 광주은행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나 모바일앱에서 응모한 대학(원)생이다.
광주은행은 추첨을 통해 총 402명에게 장학금과 커피 상품권을 준다.
1등 1명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등 1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 행운상 4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권 1매를 준다.
추첨 결과는 4월 중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달라진 캠퍼스 생활 등 힘든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2021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앱으로 주문하면 환급 비대면 외식할인 21일 마감

배달 모바일 앱으로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비용을 환급해주는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사업'이 오는 21일 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행사용 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회 결제하면 4회차에는 카드사가 1만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배정된 예산 330억원의 소진 시점을 고려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마감 일정을 공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규 응모는 16일까지 가능하고, 실제 인정 기한은 21일까지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548만명이 참여해 1324만건을 결제했다. 이중 목표 실적을 달성한 225만건에 대해서는 카드사를 통해 225억원을 환급하거나 적립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330억원)의 2배인 660억원이다. 이번에는 더 다양한 지역화폐와 공공 배달앱 등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협의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